

'공천=당선' 민주 경선 탈법·네거티브 기승

권리당원 명부 과다조치·특정후보 놓고 파벌싸움

후보 면접 완료...오늘 1차 경선 지역 40여 곳 발표

호남 텃밭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천을 위한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14일 경선 실시 지역 40여곳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 일부 예비후보들의 탈법과 네거티브 가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역구별 경선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5일 본경선이 시작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당내 후보들 간 과열 경쟁이 벌어지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까지 거론하며 엄중 경고에 나섰다.

13일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면접이 1차로 마무리되면서 종합심사가 끝나는데 경선이 필요한 중요 지역들을 선정해 14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을러 컷오프(공천 배제)가 필요한 지역과 전략 공천 지역 등은 오는 20일을 전후로 결정될 것이라고 중앙당 고위 당직자는 귀띔했다.

1차로 발표되는 경선 지역은 호남과 수도권 등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지역구 4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선 지역 및 후보자 최고위원결,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실무준

비, 선거인명부 확정 등을 거쳐 오는 25일 전후로 사흘간 1차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가 1명뿐이거나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곳은 추가로 후보를 공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간 경쟁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부터 선거캠프 내부 갈등, 후보간 고소·고발 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들의 명부를 불법 조치는 행위는 불공정 경선으로 보고 해당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 박탈이나 감점 등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일단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치해 100명 이상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모두 감점하고, 100명 미만인 경우는 심사에서만 감점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에서 100명 이상을 확인해 심사·경선에서 모두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목포 우기중 후보이며, 심사 감점을 받는 후보는 배종호(목포), 신정훈(나주·화순) 등 2명이다. 광주 광산을 김성진 예비후보는 1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확인해 징계대상에 포함됐으나 후보를 자진사퇴하면서 제외됐다.

특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움직임과 이에 맞서는 세력간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광주 동남 등에서는 전략공천 설도 파다하다.

이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일부 지역에서 상호 비방, 가짜뉴스 유포 등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자 모든 예비후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분별한 네거티브를 할 경우 공천배제, 후보자 심사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석 기자

굴뚝 없는 황금산업 마이스

전남도·시·군 확산 위해 인센티브

유니크 메뉴 활용 중·소회의 유치

전남도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마이스(MICE)의 시·군 확산을 위해 행사 개최 기관·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역별 고유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를 활용한 중·소규모 회의의 유치활동에 나선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천 800여 명이 참가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회의 등 총 73건의 크고 작은 마이스 행사를 유치했다.

참가자 규모는 총 3만 6천 987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0건 9천 741명, 2018년 15건 9천 62명, 2019년 38건 1만 8천 184명이다.

이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가 없는 농특치 않은 상황에서 마이스 연관시설이 일정 부분 갖춰진 여수를 중심으로 연이던 성과다.

올해는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과 목포 등 회의·숙박시설과 관광·체험 콘텐츠를 갖춘 시·군으로 마이스산업이 확산하도록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의 마이스 유치 관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 마이스 업계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전남에서 회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학회·협회, 조직위원회, 기업, 기관 등이다. 인센티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회의 기준 법률'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건별 2천만 원 한도에서 행사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유형별로 국제회의는 국제기구 행사의 경우, 3개국 외국인 100명을 포함해 250명 이상이 참가해 2일 이상 열어야 한다. 비국제기구 행사의 경우, 외국인 100명 이상이 참가해 2일 이상 행사를 열면 지원한다.

기업회의는 학회나 협회 주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정기회의로 100명 이상이 참가해 2일 이상 열면 된다. 30명 이상이 2일 이상 개최하는 중소규모 기업회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휴(休) 마이스' 시설을 지정해 육성한다. 자연·생태, 역사·문화 자원 등 지역별 고유한 특성이 있는 시군의 유니크 베뉴를 발굴, 인근 회의·숙박시설과 연계한 중·소 규모 휴양형 마이스 행사도 유치할 계획이다.

허성은 기자

시의회 울긋임시회 폐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성과

광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듣고 조례안 35건, 동의안 3건 등 안건 43건을 처리했다.

주요 처리 안건은 '광주시 공공시설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광주시 여성폭력 방지 기본 조례', '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이동 보호 조례', '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광주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광주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광주시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이다.

시의회는 특히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 밖에 광주시 정책자문과 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 등을 청취했다.

김동찬 의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라는 위급한 재난상황에서도 회기에 성실한 임태준 의원과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여러 현안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범 기자



광양항 상륙하는 미군 전차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미국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제2전투여단 전투단의 M1A1전차가 13일 광양항에서 하역되고 있다. 미8군사령부는 장비가 입항되기 직전 장비 하역 항만을 부산항에서 광양항으로 교체했다. /미8군사령부 제공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대비 사적지 29곳 일제 정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5·18사적지를 점검한다.

대상은 시 전역의 5·18사적지 29곳으로, 사적지 표지석과 주변 환경은 물론, 5·18유공자가 인장된 구묘역을 중점 점

검하고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4월까지 보수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5·18사적지는 지난 1998년 1호로 지정된 전남대학교 정문을 비롯해 옛 전남도청 등 총 29곳이다.

최영범 기자

광주시는 1980년 당시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사적지의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일빌딩(제28호)은 현재 복원 및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옛 전남도청(제5호)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